

이항로 진안군수 민선 6기 3년 기자간담회

'주민들 삶의 질 높였다'

23개 공약사업 중 14건 완료... 4건 올해 안·5건 임기 전 완료

이항로 진안군수는 민선 6기 3년 성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이 군수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3년, 1095일간의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3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해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군수는 "버스요금 1000원 단일화, 공용버스터미널·승강장 탄소발열의 자 설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청정 환경 지키기, 진안시장 활성화, 농산물 판로확보 등 민생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문제 해결은 시급한 현안이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약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덧붙였다.

청정 환경 지키기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군수는 "용담호를 지키기 위해 쓰레기 3NO운동으로 재활용품 수거량 7배 증가, 쓰레기 발생량 15%p 감소했고, 전체 비 재배면적의 93%인 1640ha까지 친환경유형이농법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업소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안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이항로 군수는 전망했다. 진안군은 로컬직매장, 농협 흡입술 매장, 직거래, 고품질 마니저터, 가라볼 입점 등 소규모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

해 매출액을 늘려가고 있다.

대규모 농가는 통합마케팅 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하고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를 공략해 농산물 유통 실적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연말엔 전주에 로컬직매장도 열 계획이다.

이 군수는 또 "진안홍삼의 품질향상, 브랜드 강화를 통해 국내 판매 활성화는 물론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농가 실질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 구축했다"며 "앞으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연령별·계층별 선호 제품 개발 등에 힘써 진안홍삼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마이산 연계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안의 관광산업 활성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마이산을 잘 활용해 1박2일, 2박3일 머물며 진안시장을 가고 진안의 여러 관광지

를 함께 둘러보는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약사업은 7대 분야 23개 사업 중 14건을 완료했다.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진안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주말시장 및 진안시장 전통재래시장화,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14건을 완료했고, △도시가스 공급, △농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 전 지역 확대 등 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군수는 "올해 안에 전체 공약 중 4가지를 더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후반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827억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265억원), △진안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39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86억원), △인공습지(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135억6,000만원) 등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항로 군수는 "산림연구원은 진안이 전국 광경을 뛰어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희망 진안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민으로 새 출발 무주발전 기여'

최영관·한상술 기획조정실장 등 4명 공직생활 마무리

무주군은 공로연수 중이던 최영관 전 기획조정실장(60, 지방서기관)과 강영호 전 농촌지원과장(60, 지방농촌지도관), 박영호 주무관(60, 지방기계운영주사보)이 정년 퇴직을, 한상술 기획조정실장(56, 지방기술서기관)이 지난 30일자로 명예 퇴직했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안성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최영관 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8년간 내부과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기획관리실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실장은 지역주민과 행정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 기여에 온 인물이 꼽힌다.

1984년 농촌지도소에서 공직에 몸 담은 강영호 전 농촌지원과장은 기술개발과와 소득경제과, 기술지원과, 농촌지원과 등 농업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며 무주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2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박영호 주무관은 기계분야 전문가로서 그간 무주읍과 안성면에서 남다른 업무능력을 발휘해 왔으며, 성실함과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칭송을 받아 왔다.

한편, 명예퇴직으로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한상술 실장은 1979년 공채로 들어와 36년간 무주읍면과 건설과, 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산림과, 방재산림과 등지에서 일하며 선배 공무원들을 아우르는 뛰어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추진 능력으로 귀감이 됐다.

퇴직자들은 "무주군정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배로,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 군민으로 결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오랜시간 혼신의 힘 기울인 것 감사"

장수군청 상반기 이·퇴임식 개최
5명 정년퇴임... 4명 공로연수

장수군은 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공직생활 마감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30일 한누리집담 소 공연장에서 상반기 공무원 이·퇴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은 금병남, 김진홍, 손창식, 이종휘, 전옥렬 등 5명이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김현호, 이형민, 임정례, 차주호 등 4명이다.

이·퇴임식에는 공직자와 가족, 친지, 동료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장수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데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최용득 군수는 "군민중심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오랜시간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에 감사드리다"고 격려한뒤 "퇴임 후에도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폐회했다.

군정주요사업실행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개 읍·면 27개 군정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장 선점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체육시설의 보완, 관내 유사사업장의 통합관리와 귀농귀촌활성화 등 집행부에 지적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이산·홍삼스파 홍보

진안군은 신비의 명산 마이산과 홍삼스파 등 주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전북트래블마트행사에 참가했다.

지난 29~30일 2일간 군산 GSCO(지스코)에서 주요여행사, 언론홍보매체, 관광관련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주최했다.

1일차인 29일에는 비즈니스 트래블 상담회와 전라북도 관광토크쇼를 가졌다.

2일 동안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관광상품 개발 팸투어에서 우리지역 홍삼스파가 포함돼 방문하기도 했다.

진안군은 마이산과 홍삼스파, 가위박물관 등 청정자연과 관광시설, 홍삼에 대한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기념품도 배부해 참석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북 트래블마트'서 홍보

장수군은 지난 29일~30일 군산세관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트래블마트(여행상담회)'에 참가해 200여명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장수군의 관광지, 축제, 먹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장수군은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승마 1번지 장수'의 주요 관광명소와, 사과와 오미자 등 특산물을 알리는데 힘썼다.

특히, 9월22일~24일 3일간 열리는 '제11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집중 홍보하여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학술대회 강연

태권도원에서 송판 격파·핸드 프린팅·박물관 견학 등 행사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태권도원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의 강연과 송판 격파, 핸드프린팅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30일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유승민 IOC 선수위원,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태권도화술대회에서 IOC위원장의 '올림픽 정신과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국제태권도화술대회와 대한무도학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공동으로 'Global Education for a Better Taekwondo'란 주제로 제6회 국제태권도화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특별 강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유승민 IOC 선수위원,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차별, 불법도박, 담판,

중요, 차별, 부패, 갈등, 장애, 도핑, 불평등이 쓰여진 송판을 격파해 나쁜 악습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바흐 위원장과 조정원 총재는 태권도원 방문을 기념하며 핸드프린팅 행사와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 경 태권도원 도약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태권도원 방문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